광주·전남 시도지사 새해 청사진

박 광 태 광주시장

“복지확충·일자리 창출 올인”

-서민·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복안은.

▲복지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최대 과제다. 우선 서민·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8천215억원을 투입해 복지기반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같은 복지예산은 지난해 대비 18.2% 증가한 액수다. 기초 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가구에 1천513억원, 자활근로사업 및 일자리 제공 사업에 290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78억원, 기초노령연금 915억원이 지원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는 노인 5천86명, 자활근로 사업 등에서 서민 3천621명이 일자리를 얻게될 것이다.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된다.

-광주의 숙원인 R&D특구 지정·조성 계획을 밝혀달라.

R&D 특구 지정될 땐 1만 6천여명 고용 창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2일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해 광주·전남 R&D 특구지정 방침을 확인,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올 초에는 특구가 지정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구가 지정되면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광산업·자동차·디지털 가전·디자인산업 등 첨단산업의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구지정 5년 내에 9천81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천616억원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1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전당 건립 차질에 따라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다.

▲3월께면 논란이 돼온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내 도청별관의 보존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사업계획 등 변경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부터는 전당 건립공사 전체 공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전당 건립이 국책 사업이기는 하지만,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 협의할 생각이다.

-차질없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준비를 위한 복안은.

▲U대회를 전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내기 위한 범국가적인 조직위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조직위는 대회 종합마스터플랜, 17개 종목을 치를 경기장 신·증축, 외국어 자원봉사자 양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U대회를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 광주의 국제도시화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올해 처음 광주 세계광엑스포가 열린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오는 4월2일 광주에서 열리는 광엑스포는 광주를 광산업 도시로 국제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행사로 기대되는 경제유발 효과는 5천600억원, 고용창출 효과도 1만3천명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돔구장 건립 논란에 대한 입장은.

▲포스코 건설로부터 돔구장과 부대사업의 내용이 담긴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돔구장건설 사업추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해 나가겠다. 심의위원회는 시의원, 학계, 언론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해 돔구장 건설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심의위 구성 여론 수렴 돔구장 건설 여부 결정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 이전 문제를 매듭지을 상생의 해법은 없는가.

▲전남도 일부 단체에서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시·도 상생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뺏고 빼앗는 식의 논리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무안공항이 향후에도 활성화 되지 않아 항공이용 측면에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민간단체 등의 국제선 재취항 요구가 계속된다면, 국내선 노선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광주공항 국내선은 오는 2014년 호남고속철 개통 후 항공수요 등을 판단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 준 영 전남지사

“F1대회 성공·녹색산업 역점”

-2010년 올해 주요 도정 목표는.

▲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를 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녹색산업 육성, F1 대회의 성공개최에 두고자 한다. 또한, 권역별로 미래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성장거점 5대 신도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권역별 미래산업 육성은 어떻게 추진되나?

▲광주 근교권은 나노·생물의학·식품센터를 중심으로 생물분야의 산업화에 주력하고, 동부권은 우주항공과 신소재 산업의 활성화 등 융·복합 기술을 육성할 것이다.

또한, 중·남부권은 납석 광물과 환경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천연자원 및 생물자원 산업화를, 서남권은 중형조선·요트산업 육성과 함께 천일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권역별 미래산업 육성 5대 신도시 개발 박차

-올해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개최되는데 성공대회 복안은.

▲경주장 공사가 종합 공정률 65%로, 올 상반기 완공하는데 문제없다. 이제 남은 것은 성공개최뿐이다. 따라서 올해는 대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는 3월 티켓 발매와 F1 경주장 건설 완공시점에 맞춰 신문과 TV,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다. 조직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대회 운영사인 KAVO는 스폰서 기업 유치를 전담하고,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와 한국관광공사 등 자동차경주대회 참가기업(SK엔크린·CJ미디어)도 공동 홍보에 나선다. 특히 류시원과 이세창 등 한류스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

-F1 개최기간 동안 교통대책과 숙박대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 대책은.

▲영산강 하구언 도로에 버스 전용차로와 가변 일반 통행제를 도입하고, 주요 거점지역에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을 증편할 계획이다. 대회기간 중 6만5천 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장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전북·경남, 수도권·제주 등 소요 시간대별로 세 권역으로 분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관광호텔이 부족함에 따라 시설이 양호한 일부 숙박시설은 ‘F1 inn’으로 지정해 외국인 조식 제공 및 언어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스테이 프로그램 활성화와 F1 페스티벌과 연계한 ‘F1 캠핑촌’ 운영도 생각하고 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은.

▲지난해 11월 부지조성 착공 등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갔고, 각 전시관과 엑스포타운 등 주요 시설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관련 SOC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급 숙박시설 확충도 디오션리조트 등 8개 업체와 MOU체결 추진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템플스테이, 한옥민박, 캠핑카 촌 등 체험형 숙박시설 공급 등 숙박시설 확충에 주력할 것이다. 현재 일본·중국·독일 등 32개국 3개 국제기구를 유치했고,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전략적 유치 추진에 나서는 등 참가국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숙박시설 확충 등 주력 여수 박람회 준비 착착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 발표 이전인 지난 2004년부터 ‘영산강 뱃길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일부 환경단체 우려와 달리 영산강은 운하와 연관된 지리적 위치에 있지 않고, 터널을 뚫거나 강과 강을 잇는 등의 대운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강 본래 기능을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는 친환경 사업으로 진행토록 할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